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우울, 건강 상태와 양육 스트레스

방경숙¹ · 채선미² · 박성희³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부교수¹, 조교수²,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수료³

Depression, Health Status, and Parenting Stress of Caregivers of Children in Poverty

Bang, Kyung-Sook¹ · Chae, Sun-Mi² · Park, Sunghye³

¹Associate Professor, ²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³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is a descriptive study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of depression, health status, and parenting stress of caregivers of children in poverty.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42 caregivers of preschool or school age children enrolled for the Dream Start Program in a city of Gyeonggi province, which is a program of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offering services for growth and development of low-income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009 to February, 2010 by using a questionnaire. **Results:** The vast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were mothers (n=33, 78.6%), and less than a half were married (n=16, 38.1%). Depression of the participants was at the moderate level (18.60±10.13). They perceived their health was fair (81.10±18.97). Their parenting stress was high (93.45±20.06). Their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r=.57, p<.001$) and perceived health status ($r=.49, p=.001$), which indicates their parenting stress was high as their depression was high or they perceived they were not healthy.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suggest to provide the caregivers of children in poverty with a well-developed program to manage their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and ultimately to improve their mental health.

Key Words: Depression, Health status, Parenting stress, Poverty, Caregiver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빈곤계층 아동의 비율은 2007년 기준 10.7%로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아동의 연령대별 상대적 아동 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학령전기 아동의 비율이 29.7%로 청소년기 아동 13.5%, 영유아기 아동 10.1%보다 높게 나타나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이 시기 아동의 빈곤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빈곤계층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는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하고(Kwak, Kim, & Yoo, 2007) 높은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며(Kim, 2008), 거부적이면서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Kwak et al., 2007).

이로 인하여 아동에게 화를 내거나 때리는 등의 잘못된 훈육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Bang, 2009; Bugental, Olster, & Martorell, 2002)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Hong & Lee,

주요어: 우울, 건강 상태, 양육 스트레스, 빈곤, 아동 양육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Sunghye,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10-2693-1597, Fax: 82-2-3789-1597, E-mail: sweetysunghye@hanmail.net

- 본 연구는 2009-2010년 수원시 드림스타트 용역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일부임.

투고일: 2011년 7월 27일 / 심사완료일: 2011년 10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20일

2009) 아동의 사회정서적, 언어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Hong & Lee, 2009; Kim & Kwak, 2007).

Norizan과 Shamsuddin (2010)은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어머니의 결혼 상태에 따라서도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혼이나 사별을 한 어머니가 기혼 상태의 어머니보다 높은 수준의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빈곤계층의 아동 어머니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동의 아버지보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 이로 인한 우울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Ho, 2008), 빈곤계층 여성 중 한부모이면서 학력수준이 낮고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우울 증상이 높게 나타난다(Kim, 2008).

Stoneman, Brody와 Burke (1989)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보다 높은 이유를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는 결혼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반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기질과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양육 스트레스 측정 영역에 결혼 관계 만족도는 포함되지 않으나 아동의 기질과 특성에 대한 스트레스는 포함되므로 결국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더 높게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아동 영역 스트레스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빈곤계층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 연구에는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Kim, 2008),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Ho, 2008; Kim & Kwak, 2007; Yune & Oh, 2010),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Choi, 2010; Ku, Park, Chung, & Kim, 2009; Kwak et al., 2007; Lee & Lee, 2009),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Kim, 2006) 등이 있으며, 아직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우울, 양육 스트레스와 지각된 건강 상태와의 상관성을 본 연구는 없다.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우울 증상이 증가하게 되고(Kim, 2008) 우울 증상은 양육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Norizan & Shamsuddin, 2010) 양육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각하는 측면 또한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우울, 양육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을 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우울, 지

각된 건강 상태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우울, 지각된 건강 상태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우울, 지각된 건강 상태 및 양육 스트레스를 확인한다.
-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우울, 지각된 건강 상태 및 양육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지각된 건강 상태 및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한다.

3. 용어정의

1)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란 최저생계비와 부양인의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국가에서 생활보조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정 및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인 빈곤층 및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속하는 잠재적 빈곤층을 통칭하는 차상위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일차적 양육자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정부 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에 참여하는 대상자로서 학령전기와 학령기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를 의미한다.

2) 우울

정서적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연속 선상에 있으며, 근심, 침울함, 실패감, 상실감, 무력감 및 수치감을 나타내는 정서를 의미하며(Battle, 1978), 본 연구에서는 Beck이 개발한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를 Lee와 Song (1991)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지각된 건강 상태

지각된 건강 상태는 본인이 스스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지각하는지를 의미하며(Kim, 2002), 본 연구에서는 Kim (2002)의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출산과 함께 부모-자녀 관계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나타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성가심이나 짜증 또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서(Joo, 2010), 본 연구에서는 Abidin (1990)이 개발한 PSI-S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를 Eom (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지각된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Kim (2002)이 개발한 총 3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현재의 신체 건강 상태에 대해 부정적 진술문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는 도구이며 총점의 범위는 30점에서 1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6$ 이었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우울, 지각된 건강 상태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1개시의 2개 동에 거주하는 대상자로서 정부 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 2009) 경기 수원센터에 등록된 대상자이면서 빈곤계층에 속하는 학령전기와 학령기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로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상자 수는 42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우울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이 개발한 BDI를 Lee와 Song (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포함한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되어 있는 4개의 진술문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을 하는 자가 보고식 도구이다.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 점수가 부과되고 각 문항에 대한 개인의 평정치를 합산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다. 총점이 0~9점이면 정상, 10~15점이면 약한 우울, 16~23점이면 중등도 우울, 24~63점이면 심한 우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1$ 이었다.

2) 지각된 건강 상태

3) 양육 스트레스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 (1990)이 개발한 PSI-SF를 Eom (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 영역(parental distress), 부모-아동 영역(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그리고 아동 영역(difficult child)의 세 가지 하부 영역을 포함하며 각각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가되는 Likert 5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36점에서 180점이다. 총점이 90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나타내며, 하부 영역별로는 부모 영역 36점 이상, 부모-아동 영역 27점 이상, 그리고 아동 영역 36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의미한다(Abidin, 1990). 본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6$ 이었으며, 하부 영역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부모 영역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6$, 부모-아동 영역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7$, 아동 영역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3$ 이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 5일까지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부 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 경기 수원센터에 등록된 대상자이면서 학령전기와 학령기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에게 연구 목적, 설문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대상자에 한하여 동의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47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나,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5부는 제외되어 총 42부에 대한 설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으며,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우울, 건강 상태 및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산출하였고, 우울, 건강 상태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건강 상태 및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t-test 또는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Tukey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빈곤계층 아동의 양육자는 어머니가 33명(78.6%)으로 아동의 주양육자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31명(73.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혼인 상태는 기혼이 16명(38.1%), 이혼·별거·사별 등의 기타가 26명(61.9%)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24명(57.1%)으로 많았다. 아동의 나이는 학령기 아동이 23명(54.8%)으로 많았고 아동의 출생 순위는 첫째가 18명(4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27명(64.3%)으로 많았다 (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N=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Caregivers	Mother	33 (78.6)
	Others	9 (21.4)
Caregivers' education	Middle school	6 (14.3)
	High school	31 (73.8)
	College	5 (11.9)
Marital status	Married	16 (38.1)
	Others	26 (61.9)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	24 (57.1)
	100~199	16 (38.0)
	200~299	2 (4.9)
Child's age	Preschool age	19 (45.2)
	School age	23 (54.8)
Child's birth order	First	18 (43.9)
	Second	15 (36.6)
	Third	9 (19.5)
Child's gender	Male	27 (64.3)
	Female	17 (35.7)

2. 양육자의 우울, 건강 상태 및 양육 스트레스 정도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우울, 지각된 건강 상태 및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우울은 평균 18.60 ± 10.13 점으로 중등도 수준의 우울 증상이 나타났다.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지각된 건강 상태는 평균 81.10 ± 18.97 점으로 나타나 본인의 건강 상태를 보통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93.45 ± 20.06 점으로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Table 2. Degree of Depression, Health Status, and Parenting Stress (N=42)

Variables	M±SD	Range
Depression	18.60 ± 10.13	2.00~36.00
Health status	81.10 ± 18.97	35.00~117.00
Parenting stress	93.45 ± 20.06	47.00~131.00
Parent domain	35.14 ± 8.39	18.00~51.00
Parent-child domain	27.60 ± 7.39	14.00~46.00
Child domain	30.71 ± 8.29	15.00~48.00

3. 양육자의 우울, 건강 상태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r = .57, p < .001$), 지각된 건강 상태($r = .49, p = .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의 하부 영역과 우울, 건강 상태와의 상관관계에서도 부모 영역과 부모-아동 영역의 스트레스는 우울, 건강 상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동 영역의 스트레스와는 스트레스와 우울 모두 상관성 $r = .30$ 이었으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Depression, Health Status, and Parenting Stress (N=42)

Variables	Depression	Health status
	r (p)	r (p)
Health status	.54 (< .001)	-
Parenting stress	.57 (< .001)	.49 (.001)
Parent domain	.63 (< .001)	.53 (< .001)
Parent-child domain	.51 (.001)	.39 (.012)
Child domain	.30 (.057)	.30 (.054)

4. 양육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건강 상태,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및 지각된 건강 상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와 조부모 등 어머니 이외의 보호자가 주양육자인 경우(90.33±22.92)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94.30±19.80)가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4).

그리고 양육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하부 영역인 부모영역 스트레스, 부모-아동 영역 스트레스, 아동 영역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모든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아동 영역 스트레스에서 아동 출생 순위에 따른 유의한 스트레스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35.20±7.00) 셋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보다

(27.38±7.85) 아동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일지역의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에 국한되어 대상자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일반화가 어렵다는 단점은 있으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양육에 있어 위험요인이 많은 집단으로 예견되는 빈곤계층 양육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와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이루어졌다.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양육자의 대다수는 어머니였으며, 결혼 여부는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의 상태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국내 빈곤계층 가정에서 아동 주양육자의 상당수가 한부모 어머니인 경우가 많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빈곤과 비빈곤 가정을 비교한 최근의 국내 연

Table 4. Comparison of Depression, Health Status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epression		Health status		Parenting stres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Caregivers	Mother	33	18.30±10.01	-0.35	81.94±10.01	0.55	94.30±19.80	0.52
	Others	9	19.67±11.08	(.725)	78.00±19.14	(.587)	90.33±21.92	(.605)
Education	Middle school	6	14.17±12.58	2.44	69.67±30.24	2.44	85.33±20.89	3.10
	High school	31	20.55±9.27	(.101)	84.81±16.31	(.100)	97.65±18.57	(.056)
	College	5	11.80±9.63		71.80±11.84		77.20±20.72	
Marital status	Married	16	17.00±9.69	-0.80	74.19±18.18	-1.91	96.19±21.22	0.69
	Etc.	26	19.58±10.45	(.430)	85.35±18.51	(.063)	91.77±19.55	(.495)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24	20.17±9.26	1.17	83.54±17.11	0.96	91.83±20.82	-0.60
	≥100	18	16.50±11.09	(.250)	77.83±21.27	(.341)	95.61±19.38	(.552)
Child's age	Preschool age	19	18.89±9.71	0.17	83.53±19.74	0.75	91.95±20.27	-0.44
	School age	23	18.35±10.67	(.864)	79.09±18.51	(.457)	94.70±20.26	(.664)
Child's birth order	First	18	16.39±9.15	0.79	77.00±21.70	1.11	87.33±22.33	2.32
	Second	15	20.60±11.02	(.464)	82.47±16.35	(.339)	102.00±15.53	(.112)
	Third	9	20.13±11.39		88.88±19.15		93.38±19.18	
Child's gender	Male	27	19.19±10.73	0.50	82.07±18.52	0.44	93.81±21.29	0.16
	Female	15	17.53±9.20	(.618)	79.33±20.30	(.659)	92.80±18.34	(.877)

Table 5. Comparison of Domain of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Child's Birth Order (N=42)

Variable	Child's birth order			p (Tukey)
	First child ^a	Second child ^b	Third child ^c	
Parenting stress -child domain	28.83±8.39	35.20±7.00	27.38±7.85	< .01 (b > c)

구는 비빈곤 아동가정의 부모 이혼율이 3.6%임에 반해 빈곤 아동가정의 부모이혼율은 약 10배 정도 높은 33.6%라고 보고 하여 빈곤계층에서 한부모 가족구조가 더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Yoon, 2010).

비빈곤 가정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빈곤계층의 가정 중 특히 한부모 어머니 가정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아버지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양육의 부담감도 가중되어 이들 가정의 경제적, 사회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의 우울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과반수가 우울경향을 보였으며, 약 1/3에서 중증의 우울증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Kim, 2008), 본 연구에서도 전체 대상자의 우울 정도가 중등도로 나타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빈곤계층 아동양육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우울 선별검사 및 우울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지각된 건강 상태는 81.10 ± 18.97 점으로 지각이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층 여성 한부모의 건강 지각이 낮을수록 우울 증상이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결과(Kim, 2008)에 비추어볼 때 다소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 상태의 관리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의 기준점인 90점보다 다소 높은 93.45 ± 20.06 으로 나타나 이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빈곤가정과 비빈곤가정의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한 Kim과 Kwak (2007)의 연구에서 빈곤가정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비빈곤 가정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상태가 아동 양육자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특히 가정의 주된 경제수입원으로서 그리고 일차적인 단독의 자녀 양육자로서 과다한 책임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한부모 어머니에게는 자녀 양육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

양육 스트레스 하부 영역 중 부모 영역은 36점 이상, 부모-아동 영역은 27점 이상, 그리고 아동 영역은 36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의미하는데(Abidin, 1990), Han (2010)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이혼가정의 어머니가 저소득층 양부모 가정의 어머니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영역 스트레스 35.14, 부모-아동 영역 스트레스 27.60, 아동 영역 스트레스 30.71로 나타나, 영역별로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 기준 점수와 비교해 볼 때 부모-아동 영역의 스트레스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빈곤가정의 아동 양육자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빈곤가정 부모 또는 아동 양육자의 부모-자녀 관계 또는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사정하여 효율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 건강 상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09)의 연구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우울에 가사와 육아를 포함한 만성 스트레스가 생활사건 스트레스보다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아동의 사회심리 적응(Park, Lee, & Shin, 2009)과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Han, 2010)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빈곤계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와 아동 양육자의 건강증진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나 우울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절실히 요청되며, 향후 이러한 중재의 효과를 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빈곤계층 아동을 돌보는 주 양육자는 높은 수준의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또는 지각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고 일개 지역 주민으로 국한되어 있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연구는 다양한 지역의 충분한 수의 대상자를 표본으로 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둘째,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우울이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추후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궁극적으로는 빈곤계층 아동 양육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ng, K. S. (2009).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and relating

- factors in poverty group.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2), 321-328.
- Battle, J.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 42, 745-746.
- Bugental, D. B., Olster, D. H., & Martorell, G. A. (2002). A developmental neuroscience perspective on the dynamics of parenting. In L. Kuczynski (Eds.), *Handbook of dynamics parent-child relations* (pp. 25-48). London: Sage.
- Choi, J. H. (2010). *Pathways from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ies to children's self-esteem: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rnici, K. A., & Low, D. H.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s.),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Vol. 5, pp. 243-26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om, S. H.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daily stress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an, J. A. (2010).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related to behavior problems in low income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4(3), 355-384.
- Ho, U. Y. (2008). *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single parent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Sunnam.
- Hong, S. H., & Lee, S. Y. (2009). The impact of childrearing stress of primary childrearing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children: Mediating effect of child neglect and communication between primary childrearing an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8, 137-169.
- Joo, S. E. (2010). *The effects of older mothers'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Kim, J. I. (2009). A study of the impact of acute stress and chronic stress experience on depression in low-income mothers with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5, 25-56.
- Kim, J. M., & Kwak, K. J. (2007). The effect of the parent variables,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and social support on poverty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Korean Child Studies*, 28(4) 305-317.
- Kim, K. H. (2006). Process analysis of poverty influences on academic attainment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4), 265-289.
- Kim, T. W. (2002). *The study of health conditions according to the health concern level and health responsibilitie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Kim, Y. S. (2008). *Coping resources for life-events stress and depression of low-income single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u, I. H., Park, H. S., Chung, I. J., & Kim, K. H. (2009). A pane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 57-79.
- Kwak, K. J., Kim, J. M., & Yoo, J. M. (2007). The relation of poverty, parent's variances, home environment and child development on the 3-year-old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3), 83-98.
- Lee, E. J., & Lee, S. G. (2009). Parenting stresses and children's internalized problems in poor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 neglect. *Social Welfare Review*, 14, 113-138.
- Lee, Y. H., & Song, J. Y. (1991).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BDI, SDS, and MMPI-D sc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98-113.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Retrieved April 15, 2011, from <http://library.mw.go.kr>
- Norizan, A., & Shamsuddin, K. (2010).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among Malaysian mothers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4(11), 992-1003.
- Park, J. A., Lee, K. S., & Shin, Y. J. (2009). Effects of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on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4(4), 549-566.
- Stoneman, Z., Brody, G., & Burke, M. (1989). Marital quality, depression, and inconsistent parenting: Relationship with observed mother-child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105-117.
- Yoon, E. J. (2010). *A comparative study of family factors contributing to affective behavior of advantaged children and disadvantag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Jinju National University, Jinju.
- Yune, H., & Oh, K. J. (2010).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Focused on children's age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4), 673-689.